

“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 ”

< 마태복음 6장 33절 >

- 사순절 셋째 주일입니다.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는 한 주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 성서일기 본문이 오늘부터 마태복음으로 바뀝니다.
- 지난 주 사랑방공동체 총회에서, 공동체운영위원회에서 선출된 위원장(정재훈 목사)와 부위원장(나송주 집사)가 승인되었습니다.
- 어린이학교 입학식이 4일(월) 오후 2시, 꾸러기학교 입학식이 5일(화) 오전 11시에 있습니다.
- 오늘부터 공동식사 방식이 자율배식으로 바뀝니다.
- 평양노회 북 시찰회가 5일(화)에 하늘비전교회에서 있습니다.
- 제43차 공동체운영위원회 임시회의가 다음 주일 오후 2시에 자연 예배당에서 있습니다.

* 고마움을 표해야 할 분들

나눔의 식탁 : 최기찬 전도사 · 노미현 사모 가정 (감사)
 화뢰 목사 · 추칭샤 사모 가정 (감사)
 이동환 · 정다운 전도사 가정 (감사)

강단을 꽃으로 :

주일 교회 승합차 운행시간 오전 9시50분 의정부역 6번 출구 영풍문고 앞

코이노니아를 지향하는 사랑방공동체

11187 경기도 포천시 소흘읍 무림길134-178
<http://www.sarangbang.org> 전화:(031)544-1615 FAX:(031)544-1618

역할공동체 : 생활공동체 예배공동체 교육공동체 사역공동체 선교공동체
 선 교 지 : 타지키스탄 대만 일본 요르단 중국

제 41 - 9 호

2024년 3월 3일

사랑방공동체

TK2000

“코이노니아를 지향하는 새 천년”

(고린도후서 13 : 13)



주인이 거하는 방, 사람을 만나는 방, 뜻을 모으는 방입니다.

3.1 운동과 기독교 학교

3.1 운동에서 기독교가 중요한 역할을 했음을 알고 있다. 그중에서 전역의 기독교 학교가 큰 역할을 했다. 출처 [‘한국기독교학교 정상화 추진위원회’에서 3.1운동 100주년 교육자료]

3.1운동의 중심 기독교 학교

[서울지역] 경신학교는 민족대표들과 함께 학생들의 집결 방안을 모색, 배재학당은 배재학생들이 독립선언서를 각국 공.영사관에 전달과 배재학당의 기숙사는 3.1독립만세 시위를 위한 모의장소로 사용되었다. 서명학, 유관순, 김복순, 김희자, 국현숙 학생들이 구성한 ‘5인 결사대’는 소복을 입은 이화학당 학생들과 만세운동을 이끌었다. 정신여학교의 학생들은 고종 황제의 죽음을 애통해하며, 3월5일 학생들이 대한문에서 학생만세사건으로 인해 포승되어 끌려갔다.

[평북 선천지역] 보성여학교가 중심

[평양지역] 송실학교는 서울에서 보내온 독립선언서를 학교 인쇄부에서 3,000장 이상 인쇄하여 평양 시민들에게 배포, 학생고적대는 3.1만세 시위의 행렬의 앞에 서서 ‘믿는 사람들은 군병 같으니’를 연주하며 평양의 3.1운동을 이끌어 갔다.

[공주지역] 1919년 3월 7일 공주영명학교

[군산지역] 1919년 2월 28일 서울에서 독립선언서 200장이 군산영명학교에 전달되었다.(한강 이남 지역 최초의 독립만세운동)

[전주지역] 기전여학교 1919년 3월 13일 정오 전주장터 만세운동

[광주지역] 송일학교와 수피아여학교

[목포지역] 목포 정명여학교

[대구지역] 계성학교와 신명여학교

[부산지역] 3.1운동 직후 일신여학교

기독교학교의 역할

1919년 만세운동 등 독립운동에 있어 기독교와 기독교학교가 결정적으로 역할을 감당하였다.

첫째, 교회와 학교에는 주보와 교육자료를 만들 수 있는 등사기(복사기)가 있었기 때문에 독립선언서와 태극기를 만들 수 있었다.

둘째, 전국 823개의 기독교학교들은 전국에서 발발한 3.1운동의 거점으로 사용되었다.

셋째, 기독교학교의 학생들은 독립선언서와 태극기를 만들어 나누었고, 만세시위의 앞장에 서서 조국의 독립을 위해 뜨거운 고귀한 헌신을 마다하지 않았다.

3.1운동 후 일제에 의한 기독교의 피해상황

6개월간 장로교회의 피해상황은 체포된 기독교학교의 교사 및 기관의 지도자가 202명이며, 파괴된 학교만 8개라고 기록되어 있다. 사살된 자가 41명, 매 맞아 죽은 자가 6명, 체포된 신도가 3,804명 그 중에서 목사장로가 134명이었다.

1919년 11월에 열린 미감리회 연회 보고에 의하면 당시 감리교 목회자로 수감 중인 연회원(목사)이 18명, 유급 전도사가 51명에 이르고 일반 신도는 102명에 이르렀다.

기독교 지도자들도 감옥에 가는 것은 물론 그보다 더한 죽음까지 각오하고 있었다.

한주간의 말씀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를 따르는 사람은 어둠 속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을 것이다. ”

< 요한복음 8장 12절 말씀 >

<수요기도회>

인도 : 권재만 목사

찬송 : 304 288 459 / 322

기도 : 이용신 장로

성경 : 디모데 후서 1장

제목 : 복음을 위해 고난 받으십시오

1. 내용: (What)

<문단구분>

1~7. 인사와 은사 격려

8~14. 복음설명과 바울의 마음가짐

15~18. 바울을 버린자와 부끄러워하지 않은 자

2. 의미: (Why)

- 1) 하나님은 선물을 주셨는데 사랑의 절제를 통해 길러나가야 한다.
- 2) 복음을 전할 때, 믿음과 사랑으로 말씀을 대하고 성령으로 선한것을 지키며 고난을 이겨내자.
- 3) 오네시보로는 바울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실제적 도움을 주었다.

3. 적용: (How)

- 1) 사랑으로 절제하며 하나님 능력의 은사를 기르자.
- 2) 말씀을 본받고 복음을 지키자.
- 3) 삶의 곤경에 빠진 지체를 위해 힘쓰자.

성서일기

꽃샘추위를 날려버린 수목원 나들이

몇 주 전 주일 오후에, 공동체 마당 모닥불 옆에서, 남자 집사님 몇 분이 삼일절 나들이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삼일절에 사랑방공동체 식구들이 모두 모여 등반 행사를 했던 옛일을 회상하며 이것을 되살리면 좋겠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이번 수목원 나들이는 거기서 시작된 듯합니다. 시간이 되는 사람들은 삼일절 아침에 광릉수목원에 모이자는 문자를 받았거든요.

갑자기 다시 겨울로 돌아간 듯 매서운 바람이 불던 추운 날씨에다 예정에 없던 비공식적인 모임인데도, 같이 하는 일에 늘 관심이 많은 우리 사랑방공동체 식구들답게 스물여덟 명이나 모였습니다. 우리 부부가 수목원 입구에 가자마자, 미리 와 있던 분들이 반갑게 맞아주시며 바나나에, 과자에, 초코파이에..., 정이 담뿍 담긴 여러 간식들을 손에 쥐여 주시더라고요. 하여간 먹는 것으로 정을 나누는 우리 식구들답습니다.

정혜정 권사님이 일일 가이드를 해주셔서 온실과 산책로를 여유롭게 걸어 다녔어요. 평소에 교회에서 만나도 서로의 소소한 이야기를 나눌 시간을 갖기 어려웠던 여러 집사님과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채영학 집사님이 전국의 맛집을 찾아가는 '식객' 모임을 하게 된 계기도 듣고, 정혜정 권사님과는 아이들 키운 이야기를 주고받으며 공동체학교 선생님들께 감사한 마음도 나누었지요. 전경희 집사님은, 이렇게 바람이 많이 불고 추운 날에는 고등학생 때 처음 봤던 영화 '메리 포핀스'가 떠오른다고 하시면서, 마음을 어떻게 먹는지에 따라 우리의 삶이 많이 달라지는 것 같다고 하셨습니다. 임명숙 권사님과 임은숙 집사님, 그리고 박경희 집사님과는 이름에 얽힌 이야기를 하면서 깔깔 웃었습니다. 정혜정 권사님이 예약해두신 손두부 집에서 엄청 맛있는 두부와 나물, 청국장을 게 눈 감추듯 먹으면서도 도란도란 나누는 이야기는 끊임없이 이어졌습니다. 두툼한 배를 안고 식당을 나와 '주일에 다시 만나자'는 인사를 나누고 헤어졌습니다.

광릉수목원 나들이는 매서운 꽃샘추위를 날려버리는 따뜻한 만남의 시간을 만들어주었습니다. 공동체 식구들의 맑은 얼굴, 두런두런 이야기 나누는 목소리, 흠길을 걷는 발소리들이 우리 사랑방공동체에 늘 가득하면 좋겠습니다.

따뜻한사랑방 이재신 집사

지체들의 삶

주일공동예배

오전11시

인도자 : 권재만 목사
설교자 : 정재훈 목사

하나님의 부르심과 응답

- 초청의 말씀
- * 예배의 찬송
- * 기원의 기도
- * 기원찬송

이사야서 42 : 1-4 인도자
8 다함께
영광 영광 인도자
다함께

죄의 고백과 용서

- * 참회의 기도
- * 용서의 말씀
- * 신앙고백
- 고백의 찬송
- 공동기도
- 목회기도

로마서 8 : 1-2 인도자
154, 90 다함께
다함께
인도자

하나님의 뜻과 말씀선포

- 성경낭독
- 성가대 찬양
- 설 교

요한복음 8 : 12-20 설교자
261 비움사랑방
“ 나는 세상의 빛이다 ” 정재훈 목사

의탁과 섬김의 삶

- 의탁의 기도
- 응답의 찬송
- * 봉헌기도
- * 영광찬송
- * 위탁의 말씀
- * 강복기도

설교자
84 다함께
438(1) 인도자
다함께
설교자
설교자

* 표는 일어서서 예배를 드립니다.

† 헌금은 들어오실 때 헌금함에 자유롭게 하십시오.

예배를 안내 : 김병우 정영옥 / 봉헌위원 : 나송주 / 꽃꽂이 : 김영화
돕는 이들 반주 : 김영희 이근자 정다운 임은숙
이예은 진시우 김보경 진나우

예 배

공동기도문

세상의 빛으로 오신 하나님
부활절을 준비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살아가게 하셔서
거룩한 삶을 이루어가기를 원합니다. 아멘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자신을 이렇게 정의하셨습니다. 이 말을 들은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참되지 못하다 공격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서는 자신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증언하여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가르치실 때에 다른 이들이 증언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세상의 빛으로 계시하신 이유. 이 말씀을 하시면서 자신을 따르는 사람은 어둠 속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을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세상은 어둠 속에 있다는 대전제를 깔고 있습니다. 빛을 따르는 것은 질서가 있는 삶, 새 창조의 삶,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거룩한 삶을 살아가십시오. 거룩한 삶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거룩은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거룩은 하나님과 관계가 중요합니다. 성경에서 하나님과 사람과의 올바른 관계를 나타낸 곳이 있습니다. 바로 십계명입니다. 하나님과 이웃과 올바른 관계를 맺음으로 거룩한 삶을 살아갑니다.

수요기도회 / 저녁 7시 30분 / 인도 : 정재훈 목사 / 기도 : 이윤희 권사

< 사랑방공동체학교 소식 >

꾸러기학교

무림리의 아침은 살얼음이 생길 정도로 쌀쌀합니다. 그리고 낮에는 걸옷을 벗고 싶을 정도로 따스해집니다. 개구리 소리로 들리고, 따스한 햇빛을 보면 이제 봄이 왔다는 생각이 듭니다. 봄은 꽃도 피고, 나뭇잎도 나고 참 예쁘지만, 가장 예쁜건 입학예배를 드리러 오는 예쁜 꾸러기들이 제일 예쁜 것 같습니다. 다음 주 꾸러기들의 예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다음 주 화요일에 24년 꾸러기학교 입학예배가 있으니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꾸러기들은 새학기를 기대하며 집에서 지내고, 선생님들은 학교에 나와서 새학기를 준비합니다. 선생님들은 24년에 함께 하는 친구들과 어떻게 하면 꾸러기학교에서 즐겁게 지낼 수 있을지 고민하며 회의를 합니다. 그리고 아주 꼼꼼하게 대청소하며 아이들이 건강하고, 즐겁게 지낼 환경을 준비합니다. 이렇게 준비한 꾸러기학교에서 아이들이 얼마나 많이 웃고, 즐거워할지 생각하면 기분이 좋습니다. 올해도 하나님 은혜 안에서 얼마나 잘 지낼지 기대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아이들과 선생님들 모두 건강하고, 행복한 한 해가 되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 교사 : 이어람 >

어린이학교

파아란 하늘과 지저귀는 새들의 소리로 완연한 봄을 알립니다. 바람이 차긴 하지만 하늘이 참 예쁜 한 주간이었습니다.

금요일 오전에 1학년 신입생 이가람 어린이네 집에 가정 방문을 다녀왔습니다. 은은하게 들려오는 피아노 소리가 대문밖에 울리는걸 보니 가람이가 요즘 피아노를 배우는 듯 했는데 정말 방학동안 배웠다고 합니다. 정성스럽게 간식을 만들고 차려주셔서 맛나게 먹었고,

가람이의 방에 가서 이런 저런 얘기도하고 직접 아이클레이로 만든 작품을 보며 칭찬도 해주며 더 친해지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가람이가 학교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선생님들은 개학 준비로 바빴습니다. 독서 시간이 새로 생겨서 도서관에 책상과 의자를 놓았고, 공동주택을 어린이 수업 장소로 쓰게 되어 청소도 했는데 아늑한 교실에서 수업하게 될 아이들의 모습을 상상하니 미소가 지어집니다. 도서관과 공동주택에 책상과 의자를 준비해주신 나사렛 소장님께 감사드립니다.

3월 4일 월요일 개학을 하며 14시에 교육관에서 입학식이 있습니다.

1학년 이가람, 3학년 이수현의 입·편입식에 오셔서 축하해주시고 관심 가져주시며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 교사 : 이현숙 >

멋쟁이학교

지난 주일, 멋쟁이학교는 입학식 및 개강식이 있었습니다. 새로운 멋쟁이들, 그리고 교장선생님과 함께 두근거리는 가슴을 안고 출발한 곳은 경주였습니다. 먼 곳으로 떠나는 버스 안과 레크레이션으로 웃음을 더했습니다. 둘째날에는 한국 최초 에어돔 축구장에서 약 4시간 동안 정신없이 뛰놀았습니다. 곁에서 보기에다 장관이었지만, 감탄이 절로 흘러나오는 안쪽 코트에서 뛰자니 더욱 신나서 너나할 것 없이 엄청나게 뛰어다녔습니다. 게다가 바로 옆에 사우나가 딸려있어서 멋쟁이들은 좋아라 하고, 바로 뜨끈하게 씻고 나올 수 있었습니다. 저녁에는 서로의 마음과 신뢰를 확인하고 훈련하는 공동체훈련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때가 가장 좋았다고 피드백하는 멋쟁이들이 많았습니다. 다음 날에는 올라오는 길에 주상절리를 둘러 학년별 시간을 가졌고, 다음날 아침에는 피드백을 했습니다. 모든 시간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고백하며, 은혜로운 마무리까지 완벽했습니다. 기도해주시고 도와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합니다. 앞으로의 생활에도 많은 기대가 됩니다. < 교사 : 이어진 >

감사하며 기쁘게 살고 싶습니다

이번 주간에 멋쟁이는 개학을 하여 개학 여행을 경주로 다녀왔습니다. 아이들은 피곤한 모습이 역력한데도 아주 밝은 모습으로 돌아왔습니다. 예전과 다른점은 식사를 하는데, 평소 가을에나 먹을 법한 양의 밥과 반찬을 먹어치웠습니다(?). 잘 먹는 멋쟁이들을 보며 기뻐하기도 하고 행복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3방을 20년 만에 정리하였습니다. 정리하는 동안 많은 이들의 손길이 오갔습니다. 새로운 식구의 짐을 들였고, 여러 사람들이 각자 자리에서 잘하는 것들을, 또는 부족한 것들을 거들며 함께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또, 어린이학교는 부족한 기구들을 들이고, 교사들이 회의로 자주 모입니다. 어느 날은 밤 12시가 다 되었는데 회의 중이니 다음에 통화하자는 이야기를 들으며, 감사하면서도 많이 미안했습니다.

꾸러기학교 교사들은 자연예배당을 꾸러기들이 오면 맞이할 수 있도록 열심히 모여서 준비하는 모습입니다.

또 다른 곳에서는 다듬어서 쌓아놓았던 나무들을 작게 자르고, 또 그것을 게르 등에 나르느라 분주한 모습입니다. 아이들이 개학하기 전까지 마무리하려던 계획대로 되지는 않았지만 여기저기 있던 나무들이 많이 정리되어졌습니다.

함께 하지는 못했지만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2024년 한해, 나의 기도와 소망으로 하고 싶은 감사하기, 기쁘게 살기가 이루어지는 순간들이기도 한 한주였습니다.

비록 환경이 달라지더라도 환경과는 관계없이 이렇게 감사하며, 기쁘게 살고 싶습니다.

그루터기사랑방 이윤희 권사

<수요 정오기도회>

인 도 : 정다운 전도사

찬 송 : 505장, 146장

성 경 : 다니엘서 6장 6-10절

말 씬 : 언제나 감사하십시오

중보기도 :

1. 세계평화와 선교를 위해 <세계 지도자들을 위해>

올 해 세계 곳곳에 선거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선거를 위해 거짓 정보와 비방, 심지어 전쟁도 불사하는 불안한 정세 가운데 있습니다. 평화보다 힘과 무력으로 편을 가르는 시대에 각 나라의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두려우심을 알고 분별력 있는 모습을 갖도록 기도합니다.

2. 교회갱신과 공동체를 위해 <전국 기독교대안학교들을 위한 기도>
이 땅에 하나님의 교육을 위해 애쓰는 전국의 기독교대안학교들이 새 학기를 맞아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상의 교육을 하지 않고 각 학교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시기를 위해 기도합니다.

3. 지역사회와 우리 공동체를 위해

1) 건강에 어려움이 있으시거나 회복 중에 있는 식구들을 위해 계속 기도합니다.

2) 여행과 개학 준비 중에 있는 공동체학교를 위해 기도합니다.

<생활공동체 소식 >

멋쟁이학교가 새학기를 시작하면서 공동식구들이 여러 일들을 감당해주셨습니다. 개강여행을 출발할 때와 학교로 돌아올 때 매번 차량지원을 해주시고 짐도 날라주셔서 어렵지 않게 무림리 길을 오갈 수 있었습니다. 어린이학교 개학 준비와 교육관 윗층 3방을 리모델링하는 작업도 계속되었고, 주변 나무를 정리하고 환경을 정비하는 일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꽃샘 추위로 갑자기 기온이 떨어졌지만 나무 끝에 움이 트고, 개나리에 물이 오른 것을 보니 봄이 오기는 오려나 봅니다. 순식간에 공동체는 연둣빛으로 가득할 것입니다. < 장영미 전도사 >